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자녀와 어머니의 인식 연구*

유 미 숙¹⁾

차 지 량²⁾

정 계 숙³⁾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감과 행복 조건에 대해 아동, 청소년 자신과 그들 어머니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다. 부산광역시와 양산시 거주 초등학교생 452명(남 213명, 여 239명)과 중, 고교 재학 청소년 257명(남 214명, 여 42명)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평균 및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동과 어머니는 각각 자신과 자녀가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요소에서 가장 많은 행복감을 느끼며, 건강과 외모 요소에 대한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모자간 인식 차가 가장 큰 요소는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이며, 전체 행복감 인식은 어머니가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아동 모자가 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긍정적인 감정이고,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은 건강과 외모, 대인관계이었고,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과 외모에 대해 모자간 인식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전체 행복 조건의 필요성 인식도 어머니가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청소년 모자는 모두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요소에서의 행복감이 가장 컸으며 사회적 지위 및 인정에서 가장 행복감이 낮았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으나 전체 행복감에 대한 모자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넷째, 청소년 모자는 행복의 조건으로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를 가장 중요하게, 종교, 건강과 외모를 가장 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경제력과 여가는 청소년이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전체 행복 조건에 대한 모자간 인식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의 행복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행복감, 행복 조건, 아동, 청소년, 어머니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168).

1)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

3)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 kschung@pusan.ac.kr)

I. 서론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인 행복을 얻고 더 높은 수준으로 그것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 행복에 대한 인식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자 애써왔다.

행복은 주관적인 삶의 질(Burckhardt, 1985), 주관적 안녕감(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심리적 안녕감(Ryff & Singer 2008)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여러 행복 관련 용어들은 공통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은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는 주관적이라는 것, 행복은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반영한다는 것, 그리고 개인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나아가 어떤 용어로 정의되든 행복은 스스로 키울 수 있는 덕목으로서, 개인의 강점과 미덕을 알며 자신을 믿고 즐겁게 미소 지을 수 있고 일에 몰입한다거나(Seligman, 2002), 의도적인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Lyubomirsky, 2007; Martin, 2005) 행복의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또는 조건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행복 증진에 필수적이다.

행복 관련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면서 연구 초기에 주로 성인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에서부터 점차 다양한 연령층의 개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즉, 행복감이라는

정서는 연령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전미경, 장재숙, 2009; Heady, Veenhoven, & Wearing, 1992)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은 성인기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게 하므로, 최근에는 심리사회적인 주요 성장기인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도 가치 있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행복 여부보다는 발달 과업인 학업성취에 맞추어져 왔으며, 이에 특히 부모는 자녀의 행복수준을 현재의 학업성취 정도로 규정지음으로써 과도한 공부압력과 성공압력을 가하고 있다(이종각, 2011). 특히, 생의 여러 단계들 중 아동에서부터 어른으로 전이되는 가장 어려운 단계이며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힘든 시기(Carlson, 2011)에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유난한 학업 관련 스트레스와 사회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심한 갈등과 방황을 겪고 있다(전경숙, 정태연, 2009). 그 결과 지나친 통제에 따른 반발로서의 청소년의 이탈과(박종일, 박찬용, 서효정, 염유식, 2010) 낮은 삶의 만족감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행복수준과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약물 오용, 인터넷 중독, 신체활동 부족, 정신건강 쟁점을 포함한 위험행동은 높은 수준에 있다는 연구(린다, 오세숙, 2011), 한국 청소년의 행복은 다른 발달영역보다 낮으며 학교 교육이 행복감 발달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이기범, 2008), 그리고 교육으로 인해 불행감을 느끼는 고교생이 초, 중등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다(80.6%, 53.0%, 10.2%)는 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교육살리기부모연합의 최근 조사 결과(동아일보, 2013. 5. 15) 등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반면 보편적으로 학령기 아동에게 볼 수 있는 정서는 정서를 유발하는 사태의 유형이나 정서표현 형태상의 차이는 있으나 유아기 때와 같은 것이므로(김경희, 1999), 오랫동안 아동기는 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로 생각되어 왔다(김정원, 이정아, 이인경, 2009). 또한 행복에 관한 판단은 형식적 조작의 인지발달 단계에서야 가능하므로 초등학교 5-6학년이 되어야 행복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천윤희, 2005) 등으로 인해, 아동기의 행복 관련 연구의 경향(김일부, 2011)은 숫자적으로 다소 증가를 보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도 관련 연구가 극히 미미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초등학교 아동은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학업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에 주말에도 지속되는 방과 후의 과도한 학습 활동 등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경쟁적인 삶을 살고 있다(이규순, 2000; 임자성, 채규만, 2003). 초등학교 학생은 사교육 기회가 많은 경우 친구들과의 많은 접촉이 가능해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져 사교육 기회가 적은 아동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도 있지만(전미경, 장재숙, 2009;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 전체 학령 아동들 중에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수가 대체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면서 중등 입학 앞둔 6학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정계숙, 최은아, 강인설, 2008)는 초등학교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행복감과의 관계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비교하면, 초등

학교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박영신 등, 2000; 조명한, 김정오, 권석만, 2004), 성취와 자기수용, 가족 및 친지 간의 원만한 관계, 학교생활적응, 긍정적 정서, 몰입 등등의 행복 요소에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 2013), 전반적인 행복지수도 아동이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이기범, 2008). 이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의 차이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아동기의 발달과업(최영임, 장휘숙, 2008)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적 경험, 사회적 기대와 압력 등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즉, 아동과 청소년은 발달과업과 교육적 경험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기대가 다르므로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행복을 느끼는 요소뿐만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돌봄(care)과 구조(structure)의 제공자 역할을 수행한다(Bigner, 2008). 구체적인 부모역할과 양육행동에 자녀의 연령은 단일변인으로는 가장 큰 영향 요인이지만(Holden, 2010), 부모의 사고 요인인 양육 목표나 신념도 결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Dix & Bronca, 2003). 미국 중서부 중류층 부모 연구(Dunn, Kinney, & Hofferth, 2003)에서 밝혀진 것처럼 거의 모든 부모의 양육 목표는 중국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자녀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역할 행동은 부모 자신의 행복 관련 경험과 가치판단을 바탕으로 자녀의 행복 요소나 조건 전반에 대해 형성한 신념 또는 행복관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의 부모, 특히 어머니

는 자녀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므로(김명소, 한영석, 2006), 어머니가 가진 자녀의 행복에 대한 인식이나 행복관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녀가 받게 되는 일상적인 돌봄, 구조 관련 경험 및 그로 인한 모자관계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모가 나름으로 자녀의 행복에 대한 인식 또는 행복관을 가지는 것처럼, 자녀 역시 주관적 안녕감의 토대가 형성되고(Bender, 1997) 자신의 행복 관련 정서를 느끼는 상황이나 이유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학령기 무렵부터(정계숙 외, 2008) 자신의 행복에 관한 나름의 관점과 신념을 가지게 된다. 아동 및 청소년 자녀가 가진 자신의 행복에 대한 관점이나 인식은 자신의 여러 일상적 행동 뿐 아니라 행복 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과 청소년 자신의 행복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가 가진 자녀의 행복에 대한 인식과 차이가 있으면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불행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 관련 주요 변인의 하나로 부모와의 관계가 지적되고 있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청소년은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과 연합이 잘 이루어질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하였는데(김청송, 2009;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2012; 전경숙, 정태연, 2009),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모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박종일 외, 2010). 이와 같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가 부모-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다(김수연, 정문자, 1997; 김희화, 김경연, 1998).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하여 만약 어머니와 자녀

간에 행복의 요소나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에서 다르다면, 최근의 높은 취업률 비율과 과도한 사교육활동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접촉할 시간이 제한되는 현실과 함께 이 시기의 자녀가 가진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의 영향으로 모자간에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공인숙, 이은주, 이주리, 2005; 이영미, 민하영, 이은주, 2005). 이로 인해 어머니와 자녀는 모두 자녀와 자신의 행복이라는 동귀결성(equifinality)에도 불구하고 그 도달 과정의 중요한 요소인 긍정적인 모자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심리적, 신체적 돌봄과 구조 제공에 여전히 많이 의존하는 시기이지만 성장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기대와 역할이 달라지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느끼는 자녀의 행복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행복에 대한 인식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아동, 청소년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로는 유미숙 외(2013)의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 인식 비교, 임미향과 박영신(2006)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행복감과 생활만족도 비교 및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이종환과 박은아의 연구(2010)와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김의철과 박영신(2001)의 연구 등이 있다. 반면 부모와 자녀 간에 행복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연구로는 김의철, 박영신, 박선영(2012)이 초,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집단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정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행복할 때와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

행복의 조건 및 가장 불행할 때 등 4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령대별 자녀와 부모 간의 행복 관련 인식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청소년 후기이자 성인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을 포함함으로써 여전히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고교생의 독특한 발달적 특징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다양한 행복의 요소와 조건에 대한 어머니-자녀 간 인식의 특징과 차이를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감과 행복 조건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자신 및 그들의 어머니는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 부모의 행복과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부모교육을 비롯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돕는 여러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행복감과 행복 조건에 대한 모자간 인식 경향은 어떠하며,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행복감과 행복 조건에 대한 모자간 인식 경향은 어떠하며,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및 그들의 어

머니가 지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양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동 및 중, 고등학교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¹⁾ 연구 대상은 문항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 및 정서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아동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초등학교 2곳, 중학교 2곳 및 고등학교 1곳에 재학 중인 아동 및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중 아동 474명, 청소년 308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동 452명, 청소년 257명 총 709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표 1에 제시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보면,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중 4학년이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약간 더 많았다. 그들의 어머니는 30, 40대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모가 약 64%이었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33%정도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은 중학생 166명, 고등학생 90명으로 남학생이 약 83%이었다. 어머니는 40대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70% 이상이 취업모이었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300~400만원과 400만원 이상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자녀의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하위요인은 행복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하여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

1) 본 연구의 대상은 정계숙 외(2013)의 연구대상 중 일부임.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아동		청소년	
	구분	n (%)	구분	n (%)
학년	초 3	65(14.4)	중 1	70(42.2)
	초 4	222(49.1)	중 2	77(46.4)
	초 5	80(17.7)	중 3	19(11.4)
	초 6	84(18.8)	고 1	35(38.9)
			고 2	39(43.3)
			고 3	16(17.8)
성별	남	213(47.2)	남	214(82.4)
	녀	239(53.0)	녀	42(17.6)
모 연령	30-39세	204(44.1)	30-39세	41(16.0)
	40-49세	251(54.8)	40-49세	198(77.0)
	50-59세	3(0.7)	50세 이상	10(21.4)
	60세 이상	2(0.4)		
모 학력	초등학교 졸업	4(0.9)	초등학교 졸업	4(1.6)
	중학교 졸업	20(4.4)	중학교 졸업	7(2.7)
	고등학교 졸업	228(50.4)	고등학교 졸업	149(58.0)
	대학교 졸업	180(39.8)	대학교 졸업	86(33.5)
	대학원 졸업	11(2.4)	대학원 졸업	8(3.1)
모 직업유무	유	287(63.5)	유	181(70.4)
	무	158(35.0)	무	73(28.4)
월소득	200만원 미만	67(14.9)	200만원 미만	41(16.0)
	200-300만원 미만	92(20.4)	200-300만원 미만	52(20.2)
	300-400만원 미만	133(29.4)	300-400만원 미만	79(30.7)
	400만원 이상	149(33.0)	400만원 이상	79(30.7)

주. 무응답에 따라 변인마다 사례수에 약간 차이가 있음.

석(2003)이 제시한 한국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16요소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들이 이를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자녀의 바른 성장’, ‘배우자(이성)와의 사랑 및 신뢰’를 제외하고 ‘건강’과 ‘외모’는 모두 신체적인 내용이므로 한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요인의 문항

표현은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를 위해 수정하였다. 또한 Seligman(2011)의 5개 행복 구성요소 중 김명소 등(2003)의 16가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두 가지 요소인 ‘몰입’과 ‘긍정적 정서’를 추가하였으며, 학령기 이후 아동의 생활의 중심이 점차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고

학교생활적응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소선숙, 2012)로부터 ‘학교생활적응’요소를 추가하여 총 16가지 요소로 구성하였다. 각 요소별로 3~5가지의 하위항목을 구성하여 아동 및 어머니용 설문지는 총 57문항, 청소년 및 어머니용 설문지는 총 58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하위 요소들 중 ‘사회적 지위 및 인정’에서 청소년용 설문지에 ‘원하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1문항 더 추가하였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위해 아동학, 교육학, 특수교육학 및 유아교육학 전공 교수 4명,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1명, 박사과정 수료 연구원 4명이 연구목적의 적절성, 내용의 일관성, 각 요소 내 문항 간 상호배타성, 용어 사용의 적절성, 응답 방식의 적절성, 문장의 이해도 등을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질문지는 질문 내용요소는 모두 같으나 질문 목적(행복감, 행복 조건)과 대상(아동, 청소년)을 달리한 네 가지 종류가 사용되었다. 현재의 행복감에 대한 질문지는 행복의 16가지 요소를 현재 어머니의 자녀가(또는 자녀 자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질문하였고, 행복 조건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자녀가(또는 자녀 자신) 행복하기 위해 그 요소들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를 물었다. 즉, “당신은 현재 자신(자녀)이 다음의 행복 요소를 각각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는 “당신은 자신(자녀)이 행복하기 위해 다음의 행복 요소들이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질문하였다. 질문 문항의 예를 들면,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요소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신의 삶의 상황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

표 2. 척도의 신뢰도

	척도	연령	신뢰도
자녀 자신의 행복 인식	행복감	아동	.93
		청소년	.96
	행복 조건	아동	.96
		청소년	.97
어머니의 자녀 행복 인식	행복감	아동	.98
		청소년	.98
	행복 조건	아동	.98
		청소년	.98

에 관심을 가지는 것”, “세상에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질문지의 각 문항은 매우 많이 가짐(매우 많이 필요함)에서 거의 갖지 못함(거의 필요하지 않음)까지 6단계로 나누어 6점 척도로 평정하여 총점 범위가 아동 및 어머니용의 경우 57점-342점, 청소년 및 어머니용의 경우는 58점-348점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과 청소년 자신 및 그들의 어머니가 자녀를 더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거나, 행복하기 위해 각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설문은 2011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부산광역시와 양산시의 초등학교 2곳 19개 학급, 중학교 2곳 9개 학급, 고등학교 1곳 5개 학급에 각각 배포되었다. 설문지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에 의해 전달되고 수거되었다.

전체의 약 65%인 782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와 어머니나 자녀의 자료 중 어느 하나가 없는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하여 총 709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을 사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감과 행복 조건에 있어서 모자간 인식 비교를 위해 먼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시 결측 처리로 인하여 변인별로 분석대상 수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행복 관련 모자의 인식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의 인식 차이를 16개의 행복 요소와 총점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동의 행복감은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학교생활적응, 긍정적 감정, 긍정적인 인생관 순으로 높았는데,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는 5.53점으로 차순위 요소와 점수 차이가 컸다. 또한 가장 행복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종교, 건강과 외모, 대인관계 순이었다. 아동이 인식하는 자신의 행복감도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가 5.46점으로 차순위 요소와 큰 점수 차이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몰입, 긍정적 감정, 가족 및 친지와 원만한 관계 순이었으나 이들 요소의 점수는 엇비슷하였다. 아동에게 행복감

이 가장 낮은 요소는 건강과 외모, 대인관계, 종교 순이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동 모두의 점수가 가장 높은 요소는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이며, 가장 점수가 낮은 요소는 건강과 외모임을 알 수 있다.

아동과 어머니의 인식 차이는 여가를 포함한 9개 항목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여가($t = -3.83, p < .001$), 사회적 지위 및 인정($t = 9.37, p < .001$), 자립성($t = 2.11, p < .05$), 종교($t = -3.13, p < .01$),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t = 3.74, p < .01$), 대인관계($t = 3.52, p < .01$), 건강과 외모($t = 5.09, p < .001$), 긍정적인 인생관($t = 6.68, p < .001$), 학교생활적응($t = 5.66, p < .001$) 등에서 모자간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여가와 종교를 제외한 요소에서 자녀의 행복감에 대해 어머니가 인식하는 정도가 자녀 본인이 인식하는 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모자간 인식의 차이가 큰 요소는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요소이었다. 전체 행복감도 어머니가 자녀의 행복감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자녀 스스로의 행복감보다 더 높았다($t = 2.70, p < .01$). 반면 경제력, 성취 및 자기수용,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사회·정치·문화 환경, 이타심, 긍정적인 감정 및 몰입 요소에서는 모자간에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아동의 행복 조건

아동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모자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16개의 행복 조건 요소와 총점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의 행복에 가

표 3.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모자간 인식 차이

행복 요소	대상	M	SD	t
경제력	어머니행복	3.98	.98	1.83
	자녀	3.88	1.06	
성취 및 자기수용	어머니	4.47	.96	1.97
	자녀	4.37	1.11	
여가	어머니	4.16	.99	-3.83***
	자녀	4.39	1.08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어머니	4.50	.93	9.37***
	자녀	3.99	1.13	
자기개발 및 목표 추구	어머니	5.53	1.39	.93
	자녀	5.46	1.42	
자립성	어머니	4.26	.97	2.11*
	자녀	4.15	.99	
사회·정치·문화 환경	어머니	3.80	1.03	-1.37
	자녀	3.88	1.16	
종교	어머니	3.31	1.38	-3.13**
	자녀	3.53	1.35	
이타심	어머니	3.89	1.09	-1.05
	자녀	3.96	1.18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어머니	4.60	.92	3.74**
	자녀	4.40	1.09	
대인관계	어머니	3.49	.80	3.52**
	자녀	3.33	.92	
건강과 외모	어머니	3.32	.68	5.09***
	자녀	3.02	.85	
긍정적인 인생관	어머니	4.61	.96	6.68***
	자녀	4.20	1.27	
학교생활적응	어머니	4.73	.96	5.66***
	자녀	4.36	1.22	
긍정적인 감정	어머니	4.66	.97	1.17
	자녀	4.45	1.17	
몰입	어머니	4.60	.98	-.09
	자녀	4.60	1.11	
전체	어머니	3.90	.77	2.70**
	자녀	3.65	.79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아동의 행복 조건에 대한 모자간 인식 차이

행복 조건	대상	M	SD	t
경제력	어머니	4.17	.94	-1.31
	자녀	4.26	1.19	
성취 및 자기수용	어머니	4.81	1.04	3.26**
	자녀	4.58	1.22	
여가	어머니	4.54	1.08	-1.07
	자녀	4.61	1.22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어머니	4.72	1.01	4.69***
	자녀	4.39	1.24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어머니	4.72	1.14	1.05
	자녀	4.64	1.25	
자립성	어머니	4.78	1.03	4.23***
	자녀	4.49	1.22	
사회·정치·문화 환경	어머니	4.31	1.07	1.38
	자녀	4.22	1.21	
종교	어머니	3.75	1.38	-1.61
	자녀	3.88	1.47	
이타심	어머니	4.46	1.11	.14
	자녀	4.41	1.25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어머니	4.94	1.00	4.22***
	자녀	4.66	1.25	
대인관계	어머니	3.70	.80	2.77**
	자녀	3.54	.96	
건강과 외모	어머니	3.40	.73	7.21***
	자녀	3.08	.95	
긍정적인 인생관	어머니	4.96	1.04	5.16***
	자녀	4.58	1.37	
학교생활적응	어머니	4.43	.90	7.57***
	자녀	4.01	1.08	
긍정적인 감정	어머니	4.96	1.03	3.95***
	자녀	4.68	1.30	
몰입	어머니	4.86	1.01	3.07**
	자녀	4.65	1.26	
전체	어머니	4.35	.84	3.51**
	자녀	4.05	.90	

** $p < .01$. *** $p < .001$.

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요소는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인생관, 가족 및 친지와의 원만한 관계, 몰입 순이었다. 자녀의 행복에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은 건강과 외모, 대인관계, 종교 순이었다.

아동이 인식하는 자신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긍정적인 감정, 가족 및 친지와의 원만한 관계, 몰입,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순이었다. 아동에게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은 건강과 외모, 대인관계, 종교 순이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동이 모두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요소는 긍정적인 감정이었고,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은 모두 평균점이 4점 미만인 건강과 외모, 대인관계, 종교 등으로 그 요소와 순위가 상호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모자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요소는 성취 및 자기수용($t = 3.26, p < .01$), 사회적 지위 및 인정($t = 4.69, p < .001$), 자립성($t = 4.23, p < .001$),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t = 4.22, p < .001$), 대인관계($t = 2.77, p < .01$), 건강과 외모($t = 7.21, p < .001$), 긍정적인 인생관($t = 5.16, p < .001$), 학교생활적응($t = 7.57, p < .001$), 긍정적인 감정($t = 3.95, p < .001$), 몰입($t = 3.07, p < .05$) 등의 행복 조건에 대해 어머니와 아동기 자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모두 어머니의 인식이 더 높아 어머니가 행복의 조건으로서 이들 요인의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생활적응 및 건강과 외모에 대한 인식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또한 전체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 = 3.51, p <$

.01), 어머니의 필요성 인식이 더 높았다. 반면, 경제력, 여가,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사회·정치·문화 환경, 종교, 이타심 등은 차이가 없었다.

2. 청소년의 행복 관련 모자의 인식

청소년의 행복감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의 인식 차이를 16개의 하위요소와 총점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청소년의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의 행복감은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긍정적인 인생관, 긍정적 감정,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순으로 높았으며,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는 차순위 요소에 비해 크게 점수가 높았다. 가장 행복감이 낮은 요소는 사회적 지위 및 인정, 건강과 외모, 종교, 대인관계 순이었다. 청소년 스스로의 행복감도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가 차순위 요소와 큰 차이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몰입, 여가, 긍정적 인생관 순이었으며, 청소년에게 가장 행복감이 낮은 요소는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종교, 건강과 외모, 이타심 순이었다. 이 중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종교는 평균점수가 3점 미만이였다.

청소년이 현재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요소에 있어서 청소년 자신과 어머니 간의 인식 차이는 여가를 포함한 14개 항목에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취 및 자기수용($t = 2.34, p < .05$), 여가($t = -3.71, p < .001$), 사회적 지위 및 인정($t = 8.76, p < .001$),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t = 5.52, p <$

표 5.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모자간 인식 차이

행복 요소	대상	M	SD	t
경제력	어머니	3.82	1.01	1.68
	자녀	3.70	.97	
성취 및 자기수용	어머니	4.12	.98	2.34*
	자녀	3.94	1.07	
여가	어머니	3.94	1.06	-3.71***
	자녀	4.25	.95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어머니	3.24	.71	8.76***
	자녀	2.79	.66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어머니	5.43	1.44	5.52***
	자녀	4.88	1.25	
자립성	어머니	4.19	1.01	3.78***
	자녀	3.90	.83	
사회·정치·문화 환경	어머니	4.09	1.05	3.64***
	자녀	3.77	.97	
종교	어머니	3.39	1.44	5.73***
	자녀	2.82	1.44	
이타심	어머니	3.74	1.21	5.82***
	자녀	3.14	1.06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어머니	4.52	.96	6.46***
	자녀	3.98	1.13	
대인관계	어머니	3.56	.73	2.01*
	자녀	3.44	.79	
건강과 외모	어머니	3.28	.60	4.84***
	자녀	3.02	.75	
긍정적인 인생관	어머니	4.60	.92	4.45***
	자녀	4.24	1.07	
학교생활적응	어머니	4.31	.87	9.35***
	자녀	3.64	.93	
긍정적인 감정	어머니	4.53	.94	5.10***
	자녀	4.13	1.09	
몰입	어머니	4.38	.97	.25
	자녀	4.36	1.10	
전체	어머니	3.89	.88	1.69
	자녀	3.69	.85	

* $p < .05$. *** $p < .001$.

표 6. 청소년의 행복 조건에 대한 모자간 인식 차이

행복 조건	대상	M	SD	t
경제력	어머니	4.20	.96	-2.12*
	자녀	4.39	1.06	
성취 및 자기수용	어머니	4.83	.92	-1.48
	자녀	4.97	1.04	
여가	어머니	4.63	1.00	-2.47*
	자녀	4.86	1.03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어머니	3.52	.68	1.27
	자녀	3.44	.78	
자기개발 및 목표 추구	어머니	5.50	1.34	-1.30
	자녀	5.65	1.29	
자립성	어머니	4.84	.96	-.30
	자녀	4.86	.91	
사회·정치·문화 환경	어머니	4.77	1.06	-.62
	자녀	4.83	1.04	
종교	어머니	3.69	1.49	2.82**
	자녀	3.33	1.66	
이타심	어머니	4.37	1.10	1.57
	자녀	4.20	1.30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어머니	4.98	.90	1.27
	자녀	4.86	1.10	
대인관계	어머니	3.86	.71	-.66
	자녀	3.91	.81	
건강과 외모	어머니	3.47	.63	1.81
	자녀	3.36	.74	
긍정적인 인생관	어머니	5.03	.93	.83
	자녀	4.95	1.09	
학교생활적응	어머니	4.79	.86	3.34**
	자녀	4.51	1.03	
긍정적인 감정	어머니	5.04	.91	.66
	자녀	4.98	1.11	
몰입	어머니	4.86	.95	-1.45
	자녀	4.99	1.03	
전체	어머니	4.24	.75	-.06
	자녀	4.34	.74	

* $p < .05$. ** $p < .01$.

.001), 자립성($t = 3.78, p < .001$), 사회·정치·문화 환경($t = 3.64, p < .001$), 종교($t = 5.73, p < .001$), 이타심($t = 5.82, p < .001$),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t = 6.46, p < .001$), 대인관계($t = 2.01, p < .05$), 건강과 외모($t = 4.84, p < .001$), 긍정적인 인생관($t = 4.45, p < .001$), 학교생활 적응($t = 9.35, p < .001$) 및 긍정적인 감정($t = 5.10, p < .001$) 등의 행복감 요소에 있어서 모자간의 인식 차이가 유의하였다. 그 중 여가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요소에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청소년 자녀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이 자녀 스스로의 행복감 인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전체 요소들 중 경제력과 몰입을 제외한 14개 요소에서 모자간 인식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전체 행복감에 대한 모자 인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 = 1.69, p > .05$).

청소년의 행복 조건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모자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16개의 행복 조건과 총점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청소년의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소는 차순위 요소와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가 있었고, 그 다음이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 인생관,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순이었으며,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은 건강과 외모,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종교, 인간관계 순이었다. 청소년 스스로의 행복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차순위 요소와 큰 점수 차이를 보이는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가 꼽혔으며, 그 다음이 몰입, 긍정적 감정, 성취 및 자기수용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청소년에게 가장 덜 중요한 조건은 종교, 건강과 외모,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순이었다.

청소년의 행복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인식 차이는 경제력($t = -2.12, p < .05$), 여가($t = -2.47, p < .05$), 종교($t = 2.82, p < .01$)와 학교생활적응($t = 3.34, p < .01$) 요소에서만 유의하였다. 경제력과 여가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어머니보다 행복의 조건으로서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고, 종교와 학교생활적응 요소는 어머니가 청소년 보다 행복 조건으로서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전체 행복 조건에 대한 청소년 모자간 인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 = -.06,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감과 행복 조건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자신 및 그들의 어머니는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인식하는 아동의 전체 행복감은 아동 자신이 인식하는 자신의 행복감 보다 높았다. 세부 요소에서는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자립성,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대인관계, 건강과 외모, 긍정적인 인생관, 학

교생활적응 등에서 더 높았고, 모자간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행복 요소는 사회적 지위 및 인정이었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 즉 타인 인식이 아동의 자신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 즉 자기 인식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의미이다. 자기 인식은 사적, 공적 자기 인식 및 사회적 불안으로 구성되는데 (Fenigstein, 1979), 아동이 자신의 행복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내적 사고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적 자기 인식이다. 반면 다른 사람의 태도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타인 인식(Fenigstein, 1987)은 내적, 외적, 공상적 타인 인식으로 나뉘고 그 중 내적 타인 인식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말한다. 어머니가 아동의 행복감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내적 타인 인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복감에 있어서 아동의 사적 자기인식 보다 어머니의 내적 타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행복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바람과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유추된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즉 학교에서 교사나 또래로부터 인정받는 점에 대해서 어머니와 자녀의 생각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자신의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성공하여 두각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회의 어머니들이 가진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요소에 대한 아동의 점수가 다른 요소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점이 이러한 추론을 지지한다.

그러나 여가와 종교 요소에서 느끼는 행복

감은 이와 반대로 아동의 사적 자기 인식이 어머니의 내적 타인 인식 보다 높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이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을 하는데 대해, 그리고 종교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거나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즉, 아동은 실생활에서 나름으로 문화와 취미 및 종교생활의 행복을 느끼지만 어머니는 아직 자녀가 공부에 집중해야 할 학생인 점, 그리고 사교육 경비 부담으로 인해 문화와 취미생활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 및 아이가 종교적 삶을 통한 행복을 느끼기엔 아직 어리다는 점 등에서 이와 관련된 자녀의 행복감을 낮게 인식한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어머니와 아동이 각각 자녀 또는 자신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한 요소는 다른 요소에 비해 현저히 높게 평가한 자기계발과 목표 추구가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성취지향적인 분위기와 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자기계발과 목표 추구는 아동들에게 주요한 자기 인식의 내용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어머니와 아동이 각각 자녀 또는 자신에게 가장 행복감이 덜하다고 인식한 요소는 건강과 외모이었는데, 이는 건강과 외모를 행복의 가장 덜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한 점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질병이 없고 건강하며 활기차고 호감 가는 외양과 같은 조건은 아동기 자녀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아직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이 없는 시기이므로, 보편적인 건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행복감과 행복의 조건으로서 이 요소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아동과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의 특징

과 문제점, 차이의 원인을 밝히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의 행복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모자의 인식에 있어서도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필요성 인식이 더 높았는데, 이것은 자녀의 행복에 대한 어머니의 바람과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자간에 인식 차이를 보이는 요소 중에서는 학교생활적응 및 건강과 외모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학교생활적응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고, 아동은 이를 건강과 외모, 대인관계, 종교 다음으로 덜 중요한 행복 조건으로 인식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성민선, 이상오, 정무성, 정은, 1998), 행복 조건으로서 학교생활적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 가치와 관련된 행동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동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가정과 학교에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강과 외모는 행복 조건으로서의 중요도를 모자가 모두 가장 낮게 인식하여 모자간 인식 차이가 주는 의미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대인관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자간 인식 정도에 차이는 있었으나 모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행복 조건은 긍정적 감정, 긍정적인 인생관 및 가족과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 등이었다.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인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적 정서를 가급적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는 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Diener et al., 1999), 주관적 안녕감의 토대가 형성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긍정 정서의 중

요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것이(Bender, 1997) 긍정적 감정 조건에 대한 모자의 기대가 높은 이유가 될 것이다. 긍정적인 인생관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 생활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긍정심리학에서의 핵심 주장(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과 관련하여 아동도 이미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 및 친지간의 원만한 관계에 대한 높은 인식도 여러 연구자들이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인데(구재선, 김의철, 2006; 서은국, 2007; Seligman, 2011; Vaillant, 2002), 이는 우리 사회의 관계주의 문화(박영신, 김의철, 2010)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주로 친구관계 문항들로 구성된 대인관계는 전체 행복 조건의 평균점을 상회하는 인식을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반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인 어머니와 아동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가족과 친지의 범위로 국한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친족사회의 전통에서 파생된 혈연의식인 가족이기주의적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이동희, 2009). 그러나 아동의 경우에 생활 속에서 어머니의 가족이기주의적 태도를 어느 정도 모델링할 수 있지만, 밀착된 친구관계를 통한 행복감이나 즐거움뿐 아니라 갈등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며(김송이, 박경자, 2002), 11-13세경에는 이 시기의 주요 대인관계 인물 중 누구보다도 동성 친구에게 친밀감과 동료의식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Lemper & Clark-Lemper, 1992) 친구관계에 대하여 행복의 조건으로서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아동기의 친구관계가 사회정서발달 및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정옥분, 2006; Rubin, Bukowski, & Laursen, 2009), 최근 강조되고 있는 아동 인성교육과 미래의 안녕한 삶을 위해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지도와 부모교육 시에 또래를 중심으로 한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소년의 경우, 전체 행복감은 모자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세부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몰입과 경제력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서 모두 인식 차이를 보였다. 여가의 경우에만 청소년이 더 높게 평가한 것을 제외하면 어머니가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 대하여 청소년 스스로보다 행복감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자녀의 행복에 대한 바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가에 대한 청소년의 사적 자기 인식이 어머니의 내적 타인 인식보다 더 높은 것도 아동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로,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연령을 막론하고 자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이 문화생활과 취미생활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하루일과가 학교생활과 사교육에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자녀가 이러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모자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요소는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지위 및 인정 순으로 나타났다. 선생님께 고민을 이야기하고 공부시간을 재미있어 하며 친

구들과 잘 지내고 학교 규칙을 잘 지키는 학교생활적응은 어머니와 자녀의 점수 순위가 모두 중간이었지만, 청소년 자녀가 학교생활적응으로 경험하는 행복감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자녀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교육으로 인해 불행감을 느끼는 고교생과 중학생이 각각 전체의 80.6%, 53.0%라는 조사 결과(동아일보, 2013. 5. 15)를 고려하면, 어머니의 자녀 이해를 위한 더 많은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함께 부모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사회적 지위 및 인정, 건강과 외모, 종교 요소는 모자 모두 행복감을 매우 낮게 평가함으로써 인식 차이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와 인정은 또래나 교사로부터 인정받고 또래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 요소에 대한 행복감을 모자 모두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은 대인관계의 행복감을 매우 낮게 인식한 것과 더불어 학교 폭력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부정적 경험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인과적 관련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자신과 어머니가 가장 높은 행복감 요소로 일관되게 평가한 것은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이다. 자기 미래에 대한 목표를 뚜렷이 하고 성취계획을 세워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Seligman (2002)이 행복한 삶의 한 요소로 제안한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 및 Ryff(1989)가 심리적 안녕감의 한 구성요인으로 본 개인적 성장과 연관된다. 우리 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생활에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어머니 또한 자녀가

그러한 삶에 대해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는 그 일을 얼마나 하고 싶은가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므로(서은국, 구재선, 정태연, 최인철, 2010), 미래의 목표를 세우되 건전한 목표여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추구하는 목표의 내용을 알 수 없었으나 한국 청소년은 중국, 일본, 미국 청소년에 비해 매우 높은 금전 만능주의적 사고를 보인다는 청소년 소비의식 실태에 대한 보고서(경향신문, 2008. 4. 23)는 이들의 목표 추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극 이끌어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대조적으로 Seligman(2002)의 즐거운 삶(pleasant life)과 Ryff(1989)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요소와 연결된 여가나 대인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불균형적인 태도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미래의 삶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도 가장 행복감이 낮은 요소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덜 중요한 행복 조건의 하나로 건강과 외모를 꼽았는데, 아직 건강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 인식이 높지 않은 시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도 올바른 시각과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균형적인 행복 요소와 조건에 대한 이해와 태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행복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복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행복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실천하여 자신의 행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자신의 행복관에 비추어 개인적, 사회적 일을 평가하고 그것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저해한다면 그것을 바꾸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한다(Noddings, 2008). 그러나 한국의 교육문화는 교육과 행복을 적극적으로 연관시키려는 생각과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고려할 때(이기범, 2008),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행복 교육의 실시는 먼저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다.

넷째, 모자간 인식 차이가 없을 만큼 청소년과 어머니가 모두 다른 요소에 비해 월등하게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는 모자가 모두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요소이기도 하다.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볼 때 아직 초기단계에 속하는 아동기에는 긍정 감정, 긍정적 인생관 및 원만한 가족관계를 가장 중요 조건으로 인식하는데 비해, 청소년기에는 학업성취가 더욱 강조되는 현실적 문제가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라는 행복의 요소를 더욱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몰입의 경우 높은 학업 강도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 자신이 2순위의 주요 조건으로 본 반면 어머니는 5순위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덜 중요한 행복 조건에 대해서는 모자간에 매우 높은 일치를 보여 건강과 외모, 사회적 지위와 인정, 종교 등을 유사하게 지적하였다. 그 중 사회적 지위와 인정은 또래나 교사로부터 인정받고 또래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이 조건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한 것은 대인관계와 학

교생활적응에 대한 낮거나 높지 않은 필요성 인식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단계로서 심리적 성숙에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일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수평적인 인간관계인 또래로부터 수용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구본용, 1999; 김경희, 1999). 많은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또래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영향을 받지만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또래의 인정을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는 모순된 인식을 보여준다. 더불어 청소년은 긍정적인 감정을 두 번째의 주요 행복 조건으로 인식하였는데, 이 긍정적 정서에 대인관계는 중요요인이다(김혜원, 김명소, 2000). 따라서 청소년의 이러한 모순된 인식의 심층 심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섯째, 소수의 예외적인 요소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행복 관련 인식은 자녀가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보다 어머니가 자녀의 행복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한 전체 행복감 요소와 행복 조건 전반에 대한 모자간 인식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아동은 전체 행복감 요소와 행복 조건에 대한 모자간 인식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반면 청소년은 전체 행복감 요소와 행복 조건 모두에서 모자간 인식 차이가 없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감이나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에 근접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긴 양육과정을 통해 자

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도 하위 요소별로는 모자간 인식 차이가 분명한 요소들이 다수 있었으며, 아동기에는 모자간의 인식 차이가 더욱 큰 점은 자녀의 연령을 막론하고 어머니의 자녀 이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의 행복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김청송, 2009; 박영신 외, 2012; 전경숙, 정태연, 2009), 긴밀한 의사소통과 자녀를 이해하고자 하는 적극적 태도를 통해 모자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은 긍정적인 모자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의 행복관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에 대한 어머니의 적절한 안내도 이러한 인식 차이를 줄이는데 중요한 점이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행복관 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과 어머니 쌍의 부실한 답변이 많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상당히 많았던 점, 연구도구의 타당도를 내용타당도 확인에 그친 점 및 행복감과 행복 조건을 동시에 평정하게 함으로써 간접 현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나, 다양한 행복 요소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감과 행복 조건에 대한 인식 및 그들 어머니의 인식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었던 점 및 그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 청소년 및 부모의 행복 증진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8. 4. 23). [문화로 읽는 세상] 돈만 아는 청소년 만든 어른들.
- 공인숙, 이은주, 이주리 (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갈등 및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4(6), 925-936.
- 구본용 (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구재선, 김의철 (2006).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와 성격, 20(4), 1-18.
- 김경희 (1999). 발달심리학-생애발달. 서울: 학문사.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명소, 김혜원, 한영석, 임지영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김송이, 박경자 (2002). 또래 지위 및 친구 관계에 따른 또래 갈등의 빈도, 지속 시간과 쟁점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2), 1-17.
- 김수연, 정문자 (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5(3), 181-192.
- 김의철, 박영신 (2001). IMF시대 한국 학생과 성인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김의철, 박영신, 박선영 (2012).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간발달연구, 19(2), 197-225.
- 김일부 (2011). 아동의 행복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아동연구(숙명여자대학교), 24(1), 23-42.
- 김정원, 이정아, 이인경 (2009).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아동의 행복감과 스트레스 및 놀이성 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30(3), 37-53.
-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 김혜원, 김명소 (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 김희화, 김경연 (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 동아일보 (2013. 5. 15). 교사들 36% “학생생활 지도로 가장 고통” 학부모 66% “사교육 등 교육풍토로 가장 고통”.
- 린다, 오세숙 (2011). 한국청소년의 여가, 건강, 그리고 행복에 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3), 173-180.
- 박영신, 김의철 (2010).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토착심리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2012). 청소년 이 지각한 행복의 수준과 요인: 가정, 학교,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149-188.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서은국 (2007). 한국 청소년의 주요 생활경험과 행복감.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17-28.
- 서은국, 구재선, 정태연,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및 정신건강 지수: 한국인의 행복 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발표 논문집*, 213-232.
- 성민선, 이상오, 정무성, 정은 (1998).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사회사업 실천모델연구. *학교사회사업*, 창간호, 179-223.
- 소선숙 (2012).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및 학교 적응에 대한 통합모형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미숙, 정계숙, 박수홍, 차지량, 홍광표 (2013).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15-26.
- 이규순 (200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학습동기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범 (2008). 한국의 교육문화와 아동의 행복감.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1-65.
- 이동희 (2009). 한국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의미와 ‘가족이기주의’의 문제. *유교문화연구*, 14, 159-172.
- 이영미, 민하영, 이윤주 (2005). 부모 간 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 이종각 (2011). *교육열을 알아야 한국교육이 보인다*. 서울: 이담북스.
- 이종한, 박은아 (2010). 내외적 자기개념, 행복 조건, 사회비교와 자기존중감의 관계: 초, 중, 고, 대학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4), 423- 445.
- 임미향, 박영신 (2006).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문화교육연구*, 12, 159-179.
- 임자성, 채규만 (2003).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95-311.
- 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전미경, 장재숙 (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47(3), 103-118.
- 정계숙, 박재국, 박수홍, 유미숙, 최은실, 서보순 (2013).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1), 27-43.
- 정계숙, 최은아, 강인설 (2008). 아동의 행복 상황 및 판단에 대한 조사연구: 문화적 특수성 접근. *아동학회지*, 29(6), 207-223.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2004). 청소년 삶의 질. 사회과학과정치연구, 16(2), 61-94.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수업 외 활동 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7(10), 63-72.
- 천윤희 (2005). 초등학교 학생들의 행복과 스트레스수준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임, 장휘숙 (2008). 아동기의 발달과업이 청소년의 행복과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2008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62 -63.
- Bender, T. A. (1997). Assessment of subjective well-being during children and adolescence. In G. D. Phye (Ed.), *Handbook of classroom assessment: Learning, achievement, and adjustment* (pp.199-225). New York: Academic Press.
- Bigner, J. J. (2008).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Burckhardt, C. S. (1985). The impact of arthritis on quality of life. *Nursing Research*, 34, 11-16.
- Carlson, J. E. (2011). *The parent effect: How parenting style affects adolescent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E.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x, T., & Bronca, S. H. (2003). Parenting as a goal regulation process. In L. Kuczynski (Ed.), *Handbook of the dynamics in parent-child relations* (pp.167-187). Thousands Oaks, CA: Sage.
- Dunn, J. S., Kinney, D. A., & Hofferth, S. L. (2003). Parental ideologies and children's after-school activi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s*, 46, 1359-1386.
- Fenigstein, A. (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37, 75-86.
- Fenigstein, A. (1987). On the nature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55, 543-554.
- Heady, B., Veenhoven, R., & Wearing, A. (1992). Top-down versus bottom-up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 Research*, 24, 81-100.
- Holden, G. W. (2010). *Parenting: A dynamic perspective*. Los Angeles, CA: Sage.
- Lemper, J. D., & Clark-Lemper, D. S. (1992). Young,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omparison of the functional importance of five significant relationship.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1(1), 53-96.
- Lyubomirsky, S. (2007). *The bow of happiness*. New York: The Penguin Press.
- Martin, P. (2005). *Making happy people*. London: Fourth Estate.
- Noddings, N. (2008). 행복과 교육. 이지현, 김선, 김희봉 (역). 서울: 학이당. (원본 발간일, 2004).
- Rubin, K. H., Bukowski, W. M., & Laursen, B. (2009). Preface. In K. H. Rubin, W. M. Bukowski, & B. Laursen (Eds.) *Handbook of*

- peer interaction, relationships, and groups.* (pp.11-1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Singer, B. H. (2008). Know thyself and become what you are: A eudaimonic approach to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13-39.
- Seligman, M. E.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Vaillant, G. E. (2002). *Aging well: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from landmark Harvard study*. Boston, MA: Little-Brown.
- 1 차원고접수 : 2013. 10. 16.
수정원고접수 : 2013. 11. 15.
최종게재결정 : 2013. 12. 04.

The Understandings of Happiness and Its Condition among Children,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Yoo, Mee-Sook

Cha, Jee-Ryang

Chung, Kai-Sook

Dep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children's and adolescents' understandings of happiness and the conditions of it, and it further examined how their own understandings of happiness differed from their mothers' perspectives.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452 elementary school-level children (213 boys, 239 girls) and their mothers, as well as from 257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214 boys, 42 girls) and their mothers, from both Busan Metropolitan City and Yangsan City. Means and paired *t*-tests were perform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children and their mothers agreed that happiness was most positively related to 'self-development and goal-orientation' as well as adolescent-mother pairs, and it was least positively related to 'health and looks'. They believed that 'positive emotion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happiness, while 'health and looks' and 'social relationships' were the least important factors. Additionally,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agreed that happiness was least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status and acknowledgement'. Adolescent-mother pairs exhibited some disagreement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school adjustment' as well as child-mother pairs. Lastly, they believed that 'self-development and goal-orientat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happiness, while 'religion' and 'health and looks' were the least important factors.

Keywords: happiness, happiness condition, children, adolescent, mother